



## 서창지구대 경찰 25시, 고가자전거 전문털이범 검거

인천경찰청은 자전거 전문 절도범이 기승을 부려 112 사건 발생에 골머리를 앓고 검거에 고민하던 차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지구대장 경감 조창민)가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CCTV 전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화물차량을 이용한 고가의 자전거만 타기 삼아 절도행각을 벌인 전문털이범을 검거해 입건했다.

21일 본지의 확인 결과 서창지구대는 “절도범 A 씨(남, 50대)는 서창지구에서만 최근 2개월 동안 19건의 절도 행각이 벌어졌다”라는 것, 그 수법은 절단기를 가지고 시정된 장치를 절단하고 훔친 자전거를 트럭에 실은 다음 훔쳐 팔아넘기는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1대 가격은 수백만 원 상당의 고가품도 있다. 인천 서창지구에서만 19건의 범죄가 일어났는데 서창지구대는 청소년과 전문털이범 소행인지 전전긍긍하며 고민에 빠졌다. 절단기가 사용됐다는 점을 알고 전문가 쪽으로 무게를 두었다.

수십년 형사 등 업무를 수행한 지구대 팀장급을 소집한 서창지구대장은 수사 착수를 함에 있어 지역 CCTV 전부를 보자고 제한하여 전

지구대 직원들은 상가부터 주민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한 다음 지역의 CCTV 조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전문털이범은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자전거를 훔치는 범죄를 확인했다. 추적 끝에 전문털이범은 검거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더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더 수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절도사건은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 절도사건은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 서창지구대는 상시 비상체제로 돌아서며 보안을 유지하며 수사에 집중했다.

지구대 베테랑 경찰들의 정보수집은 빛이 났는데 관할서 협조 또한 적극적인 자세였다. 지구대 탐문 수사가 시작되면서 꼭 절도범을 검거하겠다는 서창지구대 의지는 분명했다. 사복경찰이든 정복 경찰이든 민생을 파고드는 범죄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이 부임하여 온 이후 안전도시 인천을 추구하고 있어 전 직원들에게 전사적 근무가 요구됐다. 이에 직원들도 임전무퇴 자세로 받을 맞추고 있다는 후문이

다. 실제 지구대에서 전문털이범 절도범을 수사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서창지구대장은 최근 정보과장을 역임하고 지구대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정보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팀장급들도 형사직부터 수사에 고수들이 서창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기승을 부린 범죄는 침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해결한 요인이라고 한다.

서창지구 주민 B 씨(여 43)는 지역 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소문으로 듣고 우리 아이들의 신변에 불안도 느꼈다. 자전거 전문털이범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심이 됐다. 경찰들의 이런 노고가 음지에서 있다는 사실에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유정복 호 후반기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7일 출범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 등도 참석해 안전도시를 외쳤다. 한진호 위원장이 임명장을 받았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서창지구대가 전문자전거털이범 범죄를 해결함으로써 경찰 25시 근무가 빛났다.

한편, 조창민 서창지구대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역 내 자전거 절도



김희중 인천경찰청장, 김민호 논현경찰서장,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을 유정복 인천시장이 임명장을 준 모습.



서창지구대 인천 경찰이 절도범을 검거 후 단체촬영

사건이 계속 일어나 주민 불안감이 커졌다. 경찰은 주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했다. 자전거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 과정 지구대 팀원들의 노력은 전사적이었다.

이제 그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우리 지구대는 주민

의 불안을 주는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님 또한 안전도시 인천을 우리 경찰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만큼 ‘임전무퇴’ 자세로 경찰 본연의 일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순 기자

### 데스크칼럼



김양훈  
논설위원

22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 구성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14명 인천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정 행보가 주목된다. 인천은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국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협조가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 가운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인천이 지역구다.

한편,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여론 또한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물포르네상스는 1974년 개장한 인천항 내항을 중심으로 중구·동구에서 탄생했다. 이는 향후 인천발전에 초석이 될 구조이다.

지금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원도심이 됐고 이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인천시의 입장에서 가시 성과를 내지 못해 답답한 생태다. 이는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는데 유 시장 남은 임기는 2년이라 시간이 없다.

유정복 시장이 꼭 성공시켜야 하는 과업으로 ‘글로벌텐시티와 제물포르네상스’ 개발이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개발에 있어 하세월이란 소리가 나와 뼈아픈 대목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 개발 개방이 부상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 소유 내항 일대 182만㎡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사·문화·해양관광·레저·문화 중심의 ‘하버시티’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초기 추진은 상상 이상으로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하거나 이행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고, 내항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텐시티와 관련해서도 지역 언론의 비판도 만만치가 않다.

이를 인식한 것인지 인천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원에 달하는 토지매입비를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재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IPA는 지난해 12월 해수부에 내항 1·8부두 43만㎡ 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현재 해수부가 제3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공동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설계를 거쳐 내년 12월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된 개발 문제는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관 위주의 개발보다 더 포문을 열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하나라는 사실은 결국 인천시의 재정으로 한계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도 기관이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인천시가 이왕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관과 공동시행을 정책 일환으로 세웠다면 대기업을 참여시킨 공동 추진도 나쁘지 않다.

자본의 흐름인데 기업은 수익의 타당성이 나오면 기업끼리 경쟁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과 관련해서는 서류상의 절차일 뿐 개발사업은 종합 예술적으로 진취성을 발휘해야 한다. 기관에서 시행하니 시공만 하라는 개발은 1차원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내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

는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데 개발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내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지만 그러나 최근 10년간 내항 1·8부두 재개발 주체가 여러 차례 바뀌며 혼란만 가중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가 됐다. 내항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과 2016년 인천 내항 1·8부두 일대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현재의 건설 경기를 보면 시행자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럴 때 공격적 마케팅 사업구조를 바꾸어 자본 유치가 더 요구된다. 민간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한 이 사업은 2016년 말 인천시·IPA·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개발 방식 추진 협약을 맺어 속도를 내는 듯했지만 2019년 LH가 이탈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번에는 기반시설 착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지만 LH 기관의 이탈만 보더라도 이제는 기업을 제도권으로 입성토록 만들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의 시행을 위해 비워야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빠르다.

인천시 관계자는 19일 “민선 8기

출범 이전에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수차례 발발했지만, 이번에는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말 기반시설 착공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졌다.

1974년 개장한 인천 내항은 신항과 북항 등 인천의 다른 항만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물동량이 줄고 있고, 내항 주변 주민들이 소음·분진 피해를 호소하면서 재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사실을 분석하면 내 밥그릇에 눈이 멀 수도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간 답보가 되었던 내항 8부두에 조성한 복합문화시설 ‘상상플랫폼’ 이전 등은 유정복 호에서 큰 성과인 것은 확실하다. 오는 7월부터 공식 개장이 되는데 연 2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대기업 유치 등 크루즈 정박 등 성과는 확인됐다.

인천 원도심인 중구 개항장 일대 거리에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개항장 웨이브’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원도심 상권은 동시 시너지를 볼 것으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 ‘상상플랫폼’ 내부가 방대해 관람만 수 시간이 걸려 신포동 등 인구유입에도 각별한 신경이 요구된다.

## 유정복 시장 ‘제물포르네상스’ 개발 늦어지면 타격